

DAD, CAN YOU HEAR ME?

Three Blades, One Gillette



FERDINANDO FREGA

아버지, 제 말 들리세요?

세 개의 면도날, 하나의 GILLETTE

The Art of Attraction · 05

지난 5년은 지옥이었지만,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고,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강하고 무적이라고 믿으며 제 자신 안을 헤매고 다녔어요.

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, 2025년 2월 27일 그날,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. 저는 도망자처럼 짐을 남겨 둔 채, 아무 재산도 갈 곳도 없이 집을 뛰쳐나왔어요.

거의 법에 쫓기는 사람처럼요. 하지만 저는 인간의 정의에 진 빛이 없었어요. 어쩌면 아버지께 갚아야 할 빛이 있었는지도 몰라요.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기에 열린 채로 남은 계산서, 1996년 6월 30일, 아버지가 Gillette Italia를 떠나신 날의 날짜가 찍힌 계산서요.

어머니는 이탈리아 경영진을 설득해 아버지를 내보내게 한 사람이 저라고 아버지를 믿게 만드셨지만,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. 어떤 이유로도요.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요.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었고,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제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.

그것은 일의 흐름이었고, 저는 어느새 사업과 회사의 이익을 위한 논리적인 해법이 되어 있었어요.

우리에게 기회만 주어졌다면, 저는 언제나 아버지를 제 곁에서 일하시게 했을 거예요. 사업에, 사무실에, 아니면 제 영업사원들과 함께 현장에 계시게 했을 테지만, 결코 아버지를 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.

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포커를 치고 있었어요. 카드 텍이 달랐고, 판돈은 핫수로 매겨졌어요 — 그리고 우리의 핫수는 같지 않았어요.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미래의 설계도를 쥐고 있었어요.

그러다 2025년 4월 14일,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. 엄마가 돌아가신 지 겨우 20일 만에, 마치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처럼요. 저는 멀리, 1,50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제 운명에 내맡겨진 채 혼자였지만, 제가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.

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고, 제 아이들은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. 제가 결코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 만큼은요. 죽어서도요.

저는 울었지만, 괴로워하지는 않았어요. 그럴 시간은 있어요. 매일 몇 분씩, 아버지가 여기 제 곁에 안 계시다는 걸 알면서요.

그러다 아버지는 돌아오기로 하셨어요. 2026년 4월 14일, 떠나신 지 꼭 1년 만에.

그리고 제 글 속이 아니라면, 또 어디로 오셨겠어요.

“세 개의 면도날, 하나의 Gillette.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다시 함께였다. Camp 할아버지, 아버지, 그리고 나.”

우리는 아무도 만들어 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위해 다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. Gillette 내러티브를.

매일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글들을 읽고, 그 글들은 저를 뭉클하게 해요. 아버지가 여기, 제 곁에 계신다고 느껴요. 제가 참아야 한다고. Frega라고 불리는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고. 그

건 제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고, 제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려고 애써 온 것이에요.

하지만 아이들은 자기 엄마의 아이들이에요.

다른 여자의.

제 쪽이 아니라.

원이 닫히는 것을 보고 마지막 1마일을 떠나려면 2027년 5월까지 걸린다는 걸 알아요.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세대를 잇는 일이 될 거예요.

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생각한 건 그것뿐이었어요. 제 뒤에 올 사람들에게 일종의 안전을 주는 것. 명예의 규범, 윤리의 규범, 법의 규범을 품은 성(姓)이 보장해 주는 그런 안전을요.

많은 사람이 사기꾼이라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잡이였던 그 세 괴물.

저는 아버지의 방식대로, 저를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어요.

하지만 교훈을 남겨야 할 의무는 언제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의 일부였어요.

오늘 저는 61세예요.

내일은 또 하루가 될 거예요.

그리고 또 하루.

그리고 또 하루.

제가 아버지처럼 될 때까지.

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요.

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단 하나만 생각할 거예요.

“아들이 아버지에게 결코 배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고 편지를 쓰고,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자기 글 속에서 아버지와 계속 함께 일하는 것임을 발견한다.”

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저의 아빠예요.

Ferdinando